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2018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 개최

**최우수** 서산 웅도공동체 **우수** 남원내수면공동체 **장려** 통영이동성구획어업공동체



8월 23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201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활동사례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8월 23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2018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갖고 최우수 공동체에 충남 서산 웅도공동체(위원장 김종운), 우수 공동체에 전북 남원의 남원내수면공동체(위원장 송일두), 장려 공동체에 경남 통영의 통영이동성구획어업공동체(위원장 김종찬)를 각각 선정했다. 올해 전국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웅도공동체는 55명의 회원들이 자율

관리어업 참여 이후 바지락, 굴, 낙지 등 주요 품종의 생산량 조절, 어장 휴식년제 실시,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 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특산물인 어리굴 가공품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자매결연 업체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회원들의 단결된 역량을 보여줘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남원내수면공동체는 자체규정을 통해 채포체장 제한

등으로 어획 능력을 삭감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적극적인 해적생물 구제로 공동체 소득 향상을 도모했다. 또 장려 공동체로 선정된 통영이동성구획어업 공동체는 그물코 조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생산품인 건새우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와 함께 이날 평가위원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1,094개소에 대한 등급(선진 68, 자립 246, 모범 293, 협동 463, 참여 24개소)도 결정했다. 한편 올해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는 시도에서 우수공동체로 추천한 공동체 중 현지 확인절차를 거친 5개 공동체를 최종 후보공동체로 선정, 이날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사례 발표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입상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육성사업비 추가지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10월 1~2일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에서

1,500여 공동체 회원 참여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오는 10월 1~2일 양일간 여수엑스포 박람회장과 디오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할 가운데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를 비롯, 여수시,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수차례 업무협의를 가졌다. 또 8월 27일에는 여수시를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전국대회 행사 전반에 관해 협의하고, 개최지 주변 시설도 점검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으며, 2016년 제13회 전국대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최대의 행사이다.

## 창원시 진동자율관리공동체, 하나굴 시범사업



경남 창원시 진동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조영근)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8월 8일 창원시 진동면 진동어촌계 해역에서 하나굴 시범살포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영시 산양면 소

재 이도수산(대표 최정원)의 지원으로 하나굴 종패 3,000만미를 살포했다. 진동공동체는 앞으로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수부 차관에 김양수 기획조정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6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전북 고창 출신의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50)을 임명했다. 김양수 신임 해수부 차관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나

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 해양정책학 석사, 인천대 물류학 박사를 받았으며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해양수산부 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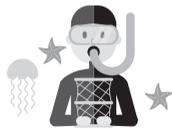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체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삭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2018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별 현황

■ '18년도 선진공동체 (총 68개소)

평가 상위 5% 이내 3회 이상 선정 또는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명	소재지
감성동 지방	경남 통영
학동어촌계	경남 거제
하전	전북 고창
대야도	충남 태안
통영연안지방	경남 통영
연천내수면	경기 연천
곰섬	충남 태안
추도어촌계	경남 통영
송호	전남 해남
통영연안통발	경남 통영
백미리	경기 화성
내동(해남)	전남 해남
통호	전남 해남
만월	전북 고창
동율	전남 보성
용기	전북 고창
치도	전북 부안
드리니	충남 태안
동삼	부산 영도
수산어촌계	강원 양양
예당내수면	충남 예산
무창포	충남 보령
포항소형선박협회	경북 포항
채석포	충남 태안
완도통발	전남 완도
중앙	전남 여수
미더덕영어조합법인	경남 창원
격포선주협회	전북 부안
전곡리	경기 화성
구만2리	경북 포항
청석	전남 고흥
연동	경북 경주
원척	경북 영덕
춘천호	강원 춘천
도황어촌계	충남 태안
외로	전남 고흥
구시포	전북 고창
다대어촌계	경남 거제
태하	경북 울릉
장사동어촌계	강원 속초
배천	전남 고흥
동강내수면	전남 나주
강원흥계통발협회	강원 속초
대항	부산 강서
원포	전남 여수
영덕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경북 영덕
화도	전남 고흥
목포연안통발	전남 목포
신촌	전남 고흥
여호	전남 고흥
죽전	경북 경주
가곡	경북 경주
호산	전남 보성
대진리	경북 포항
석병2리	경북 포항
장길리	경북 포항
쌍근어촌계	경남 거제
앵강만	경남 남해
대포어촌계	경남 거제
강릉수산업경영인연합회	강원 강릉
서당	전남 보성
제두	전남 보성
신월(장흥)	전남 장흥
다포어촌계	경남 거제
상장	전남 보성
하장	전남 보성
동암	전남 무안
적금	전남 여수

■ '18년도 자립공동체 (총 246개소)

'17년 말 현재 육성사업비 4회 또는 6억 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

공동체명	소재지
신시도	전북 군산
양평내수면	경기 양평
주전	울산 동구
중앙	충남 서산
문의	충북 청주
창원시동읍내수면	경남 창원
노구어촌계	경남 남해
장호	전북 고창
청평내수면	경기 가평
동제어촌계	경남 통영
라항	충남 태안
용신	충남 태안
연명	경남 통영
모포리	경북 포항
거진어촌계	강원 고성
육지연화어촌계	경남 통영
강양	울산 울주
중화어촌계	경남 통영
대리	전북 부안
진하	울산 울주
우가	울산 북구
궁평리	경기 화성
신온마검포	충남 태안
용남수경회	경남 통영
천관연승낙지	전남 장흥
흘곳	경기 안산
봉포어촌계	강원 고성
일산	울산 동구
신명	울산 북구
삼천포낙지연승	경남 사천
백시장	충남 태안
황도	충남 태안
국화리	경기 화성
당사	울산 북구
학암포	충남 태안
궁항	전북 부안
염호어촌계	경남 통영
아미도	전북 군산
통영소형외줄낙지	경남 통영
상포	전북 고창
이어어촌계	경남 남해
제부리	경기 화성
어물	울산 북구
의항2구	충남 태안
오이도	경기 시흥
완주내수면	전북 완주
도청	전북 부안
삼천포외줄낙지	경남 사천
방어진	울산 동구
남해연안연승	경남 남해
가평내수면	경기 가평
고온리	경기 화성
중현	경기 안산
호포	충남 태안
행낭곡	경기 안산
남해방천어촌계	경남 남해
남해잠수기	경남 남해
선감	경기 안산
내리	인천 옹진
남해연안통발어업	경남 남해
명도	전북 군산
구산리	경북 울진
나정2리	경북 경주
흥성	경기 안산
신창2리	경북 포항
웃점	충남 태안
동신어촌계	강원 양양
인구어촌계	강원 양양
몽산포	충남 태안
금곡2리	경북 영덕
탄도	경기 안산
석천리	경기 화성
통영잠수기	경남 통영
진해연안지방	경남 창원
신창	제주 제주시
식도	전북 부안

종달	제주 제주시
방축도	전북 군산
양화어촌계	경남 거제
영목항통발	충남 태안
우독산내수면	전북 김제
목호동연안지방협회	강원 동해
진리	전북 부안
대항	전북 부안
운호	전북 부안
사항어촌계	경남 남해
무녀도	전북 군산
어청도	전북 군산
화도내수면	경기 남양
삼장3리	경북 포항
왕등도	전북 부안
내항어촌계	경남 통영
봉산리	경북 울진
남양	경북 울릉
한강내수면	경기 김포
경포시근저어촌계	강원 강릉
통영수산업경영인연합회	경남 통영
보령근해안강망	충남 보령
말도	전북 군산
백석2리	경북 영덕
천부	경북 울릉
현포	경북 울릉
학산어촌계	경남 거제
정동리어촌계	강원 강릉
수인	전남 강진
수림	경북 경주
구룡포리	경북 포항
송교리	경기 화성
장지도	전북 군산
김녕	제주 제주시
창산	전남 순천
개야도	전북 군산
중리	부산 강서
고성하이연안통발어업	경남 고성
두서	경기 안산
녹산	부산 강서
은점	경남 남해
울산	전남 장흥
평림어촌계	경남 통영
학포	경북 울릉
이천	부산 기장
성산	제주 서귀포
중문	제주 서귀포
장호리어촌계	강원 삼척
홍원어촌계	충남 사천
삼천포연근해연승	경남 사천
남해동부연안지방	경남 남해
남해멀치유지장	경남 남해
사천시 저도어촌계	경남 사천
죽암	전남 고흥
다대	부산 사하
보전천전북	전남 진도
서해잠수기	충남 보령
오조	제주 서귀포
하도리	제주 제주시
강정	제주 서귀포
신덕(순천)	전남 순천
신흥(여수)	전남 여수
온평	제주 서귀포
사천시연안지방	경남 사천
벌금	전북 부안
동선	부산 강서
공촌어촌계	강원 삼척
사계	제주 서귀포
신흥	제주 제주시
이동	부산 기장
우명(순천)	전남 순천
명시어촌계	경남 거제
행주내수면	경기 고양
황포어촌계	경남 거제
유호어촌계	경남 거제
주문5리어촌계	강원 강릉
가파	제주 서귀포
문동	부산 기장
경정2리	경북 영덕
덕산리	경북 울진
직산2리	경북 울진
내장	전남 해남

어불	전남 해남
거제연안통발	경남 거제
갈두	전남 해남
동해시연승연합회	강원 동해
거일2리	경북 울진
하남월어선어업	전남 영광
대진2리	경북 영덕
영진어촌계	강원 강릉
손도죽방렴	경남 남해
남해정차장	경남 남해
삼사리	경북 영덕
강진낙지통발	전남 강진
금호	전남 진도
속초시연안유지장협회	강원 속초
외지	경남 통영
고흥어류양식	전남 고흥
신명	전남 고흥
울포어촌계	경남 거제
오천	전남 여수
상진	전남 보성
수문	전남 장흥
구역어촌계	경남 거제
포내	인천 중구
소장	전남 여수
호미곶연안	경북 포항
척사	경북 경주
경북근해지방선주협회	경북 포항
현내	경북 울진
거제연안지방	경남 거제
하정리	경북 포항
지정리	경북 포항
하정3리	경북 포항
석병리	경북 포항
계원2리	경북 포항
경북잠수기	경북 포항
두원리	경북 포항
이산내수면	전북 고창
남해남부연안지방	경남 남해
탑포어촌계	경남 거제
대동배리	경북 포항
오호리어촌계	강원 고성
삼천포죽방렴	경남 사천
양조양	경북 포항
진해남양연안지방	경남 창원
대진3리	경북 영덕
법동어촌계	경남 거제
해금강어촌계	경남 거제
고성두포	경남 고성
강구연안지방협회	경북 영덕
주문리어촌계	강원 강릉
남성(해남)	전남 해남
진목어촌계	경남 남해
속초시연승인연합회	강원 속초
남3리	인천 옹진
진촌	인천 옹진
소청	인천 옹진
남포	전남 장흥
사촌	전남 장흥
삼곡어촌계	강원 강릉
공곡	전남 장흥
강릉시연안통발협회	강원 강릉
탄도만낙지연승	전남 무안
수신어촌계	경남 거제
강릉시연안연승협회 (주문지연승)	강원 강릉
넙도	전남 완도
계마어선어업	전남 영광
복고	전남 완도
중마	전남 해남
광립	전남 신안
소돌어촌계	강원 강릉
복길	전남 무안
미라	전남 완도
이수도어촌계	경남 거제
마동	전남 무안
거문	전남 여수
초곡어촌계	강원 삼척
역포	전남 여수
연도	전남 여수
안도	전남 여수
구로낙지연승	전남 무안
삼척 대진어촌계	강원 삼척

만흥	전남 여수
화태	전남 여수
신월(여수)	전남 여수
사곡	전남 여수
서부	전남 여수
두문	전남 여수
여수 잠수기	전남 여수

■ '18년도 모범공동체 (총 293개소 중 상위 25%인 58개소)

'17년 말 현재 육성사업비 2회 또는 4억 원 이상 지원받은 공동체

공동체명	소재지
금당통발	전남 완도
웅도어촌계	충남 서산
평호	전남 해남
병술만	충남 태안
격포	전북 부안
인창	전남 신안
도성	충남 서산
통영이동성구획어업	경남 통영
왕산	충남 서산
구매	충남 태안
사천시낙지어선업	경남 사천
서부어촌계	경남 통영
빛개	충남 태안
본촌어촌계	경남 남해
양구홍호내수면어업계	강원 양구
만수동	충남 태안
판지	울산 북구
익산내수면	전북 익산
남원시내수면	전북 남원
선소	전남 보성
서변제내수면	전북 김제
원주삼강어업계	강원 원주
비응도	전북 군산
진해구연안복합	경남 창원
화암	울산 북구
도동어촌계	경남 통영
객산	전남 보성
대진리	경북 영덕
꽃지관광체험	충남 태안
봉화갈산리	경북 봉화
가진어촌계	강원 고성
삼시도	충남 보령
황도항어	전북 완주
통영나잠동우회	경남 통영
수산업경영인	경기 안산
진해소형어선어업	경남 창원
달곳	충남 태안
인제군소양호어업계	강원 인제
물치어촌계	강원 양양
산등어촌계	경남 통영
나사	울산 울주
진해시연안통발	경남 창원
신야리	충남 태안
동호	전북 고창
반월	전북 고창
옥동산내	경남 통영
방포	충남 태안
정남진장흥키조개	전남 장흥
제전	울산 북구
대포	전남 보성
탄개	충남 태안
고흥 월정	전남 고흥
평택호내수면	경기 평택
송정	울산 울주
포항연승협회	경북 포항
하정2리	경북 포항
거차	전남 순천
동자개	전북 김제

특별기고

# 자율관리어업 컨설팅 대상공동체 활성화 방안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18년 차로 인간에 비유하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 한창 성장하며 제 뜻을 펼칠 시기이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은 지금까지 1,170개소로 양적으로는 19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자율관리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금년도 자율관리 컨설팅 대상 공동체가 555개소가 되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공동체 위원장 교체시 특별교육 실시 필요

자율관리 컨설팅 대상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을 못 받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 공동체가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곳이다. 이들 공동체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잘해 왔으나 공동체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자율관리어업의 연속성이 결여돼 부진 공동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 공동체 위원장이 바뀔 때 자율관리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단절된다는 점이다. 특히 어장관리, 자원관리 등 공동체 주요 활동의 근간이 되는 자율관리규약조차 신입 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규약 자체가 비치돼 있지 않는 공동체도 많지만 설령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십

수년 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현시점에 맞지 않는 부분도 허다하다.

따라서 자율관리사업만큼은 위원장 교체시에 의무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바뀔 때에는 자율관리어업 지원부서에 신고

토록 하여 한국수산회, 지자체 자율관리 지원부서, 도 자율관리연합회 차원에서 신입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율관리 사업비 지원 제도 개선

또 다른 문제점은 공동체에 대한 육성사업비 지원이 중단될 때 자율관리어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동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추진 동력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참여, 협동, 모범공동체는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비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자립공동체는 선진공동체로 진입하지 못할 경우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4회 지원받은 후



**한형교**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강원도 담당)

3~4년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자립공동체는 선진공동체에 승급되지 못하더라도 활동실적이 우수할 경우 한두 차례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고려해 보직하다.

### 활동일지 작성에도 요령 필요

다음은 활동일지 작성이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활동일지 작성 요령 부족으로 자율관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록의 생활화이다. 물론 어촌의 고령화로 문서작성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활동일지를 제출시기 즈음에 한꺼번에 작성하려 하지 말고 자율관리 활동 시마다 수시로 일기를 쓰듯이 요점을 정리해 초안을 마련해 놓으면 1년에 2번 활동일지 자료 제출 시 지자체 자율관리 담당 직원들이나 자율관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관련 활동사진 자료들은 회원들에게 수시로 관련된 활동 시 문자나 SNS로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회의 등을 통해 주지시키는 것도 요령이다. 평가항목에는 노력도, 참여도, 성

과도, 지속도, 파급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작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높은 평가를 기대하지 말고 자료제출 평가 후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빈약한 활동부분을 계속 보완 노력하여 평가점수를 높여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 컨설팅 통해 공동체 발전 모색

강원도 담당 컨설턴트인 필자는 올해 강원도 전체 88개소 중 22개소를 컨설팅 대상 공동체로 맡고 있다. 컨설팅 할 때는 공동체 위원장과 미리 약속을 잡고 공동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데, 일부 공동체 위원장은 컨설턴트 방문 전화 자체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대부분 위원장이 바뀌어서 자율관리 공동체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도 컨설팅을 통해 자율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컨설팅 대상 공동체 위원장께서는 자율관리 컨설턴트의 방문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어촌마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 2018년 자율관리어업 등급평가 최우수 공동체

## 서산 웅도공동체

### 철저한 공동어장 자원관리 ... 어리굴 가공시설 마련해 '부자마을 롤 모델' 기대



하루 두 번 간조때 물길에 열려야 드나들 수 열악한 환경을 극복을 극복하고 웅도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로 성장했다.



마을어장의 바지락 종패 살포모습.



웅도공동체 회원들의 바지락 공동작업 모습.



회원들이 자체 생산한 어리굴젓. 웅도공동체는 어리굴 가공시설을 마련,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태안반도의 가로림만 안쪽에 위치한 작은 섬 웅도가 2018년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 타이틀을 획득했다. 웅도 공동체는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도 마을어업 부문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자율관리어업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 두 번 간조 때 물길에 열려야 드나들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마을어업 공동체로 우뚝 선

웅도는 2013년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까지만 해도 사무실도, 자체자금도 전무한 보잘 것 없는 섬마을이었다. 하지만 공동체 결성이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회원들의 의식변화를 주도하는 한편,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했다.

먼저 자원관리를 위해 바지락과 가무락의 조업기간을 7~8월 두 달간으로 정하고, 1인당 채취량도 40kg 이하로 제한했다. 67ha의 패류어장 중 21

ha에 대해 연중 순번제 어장 휴식년제도 추진했다. 황폐해진 어장복원을 위해 굴 양식장에 대한 투석과 저질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ha의 가무락 종패장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마을어장의 자원을 크게 증강시켰다.

또 마을어장의 공동 생산물은 서산 수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고, 판매대금을 공동분배하여 회계를 투명화했다. 지난해에는 공동체 어가당 200만원 씩을 공동어장 판매액에서 배당했다.

특히 특산물인 어리굴을 어가에서 젓갈로 가공해 미래에셋 등 자매결연업체 및 택배로 직거래하고 있는데, 공동체 가공공장 건립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웅도공동체 김종운 위원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돼 지원받는 육성사업비 등으로 어리굴 가공시설을 조성, 부자공동체의 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인천 사하동공동체, 부안 격포공동체 방문



인천시 중구 사하동 자율관리 공동체 회원 30여명은 8월 8~9일 부

안군 격포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격포공동체 김재태 위원장은 격포공동체의 활동 현황 및 성공요인을 소개하고, 한국수산회 양문주 부장은 자율관리어업 사업 전반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며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마산복합자율관리공동체, 심리 해안변 대청소 '구슬땀'



마산복합자율관리공동체의 구산면 심리 일원 해안변 정화 활동 모습.

경남 창원시 마산복합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종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8월 12일 구산면 심리에서 해안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마산복합 자율관리공동체 회원과 가족 등 30여명은 심리 해안변 인근에 방치돼 있는 폐어구, 낚시용품 등 각종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다.

### 단양강 일대 쏘가리 치어 7만2,000마리 방류



충북 단양군은 8월 20일 단양읍 별곡생태공원과 가곡면, 영춘면 일대에

서 쏘가리 치어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류한우 군수를 비롯, 박진규 남한강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이재완 단양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단양지역 어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양강에 질병검사를 마친 3cm 안팎의 건강한 쏘가리 치어 7만2,000마리를 단양강에 방류했다.

### 묵살된 어심(漁心), 바다모래 채취강행

#### 충남도 태안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충남 어업인들이 8월 13일 태안군청에서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및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가졌다.

### 바다모래채취 결사 반대!!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재개가 강행되자 어업인들이 또다시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 등 행정당국이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업인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어업인들의 의견이 묵

살된 채 충남도가 8월 10일 태안해역에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고시해 버렸다. 어업인들은 충남도의 행태에 격분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태안 어업인과 관내 수협 조합원, 환경단체 등은 8월 13일 태안군청에서 충청남도 태안 바다모래 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및 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8 귀어귀촌 박람회... 어촌의 새로운 가치 알려



'2018 귀어귀촌 박람회'가 8월 10~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 전시관에서 열렸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어촌의 새로운 가치 및 성장 가능성을 알리기 마련됐다.

### 공동체 탐방 / 인천 신불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뿌린대로 거두는 바다에서 '동죽'으로 희망을 갠다



라종필 인천 신불공동체 위원장



갯벌에서 채취한 동죽과 모시조개는 선별하여 어선에 싣고, 밀물 때 선창으로 옮겨 대고 있는 차량을 통해 연안부두 등으로 직판된다.



해안가 청소작업에는 전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동죽 종패 살포를 하고 있는 모습.

“바다는 애쓰 만큼 우리에게 대가를 돌려줍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갈퀴리로 채취작업을 하다가 조개껍질이 깨질 때면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모릅니다.”

지난 90년대 초반 영종도의 공항 매립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신불도를 떠났다가, 사라졌던 동죽조개가 다시 서식하면서 2006년 고향으로 돌아와 갯벌을 일구고 있는 신불공동체 라종필 위원장(48). 그는 뿌린대로 거두는 바다의 고마움, 자율관리어업의 효과를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으면서 영종도 주변에 있는 신불도, 용유도, 삼목도

는 매립돼 하나의 섬으로 합쳐졌다. 간척사업이 시작되자 100여명이 넘는 어업인들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10명도 채 남지 않은 어업인들은 다시 갯벌을 찾아온 동죽조개를 따라 하나 둘 모여든 옛 동료들과 2013년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재기의 결의를 다졌다.

현재 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은 39명. 연로하여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어업인까지 합하면 6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매달 2~3차례 어장청소를 하며, 종패를 살포하고, 채취량 조절로 조직적인 어장관리에 나섰다.

이전에는 한사람이 하루에 수백kg 씩 마구잡이로 잡았으나 2년전 라위원장님이 공동체를 맡으면서 1인당 40kg(2망)로 줄였다. 당장 소득이 줄어든 회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공동 출하를 통해 과거 개인이 판매할 때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패살포를 해 줄 수 없는 만큼 공동체는 자원조성을 위해 1일 1인당 판매액의 4%를 기금으로 적립,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동죽과 모시조개 종패를 자담으로 살포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취한 조개를 차량으로 옮

기기 쉽게 선창을 마련하는데만도 1억원 이상의 공동체 기금이 들었지만 미래를 향한 투자기에 머뭇거림은 없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열심히 노력했으나 활동일지 작성 등이 미흡하여 아직 육성사업비를 한번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지원금이 나오면 수족관을 갖춘 직판장을 비롯, 화장실, 샤워장이 딸린 유어장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창출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라위원장은 공동체의 비전을 밝혔다.